2023 - 8주차

[사무엘상 14:24-35]

가정예배지

장년용

우리수 신앙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사울의 금식 명령과 이를 어긴 요나단

24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저녁이 되기 전, 적들에게 원수를 갚기 전까지 먹을 것을 입에 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25 군사들이 숲에 들어갔을 때 땅 위에 꿀이 있었습니다.

26 그들은 숲에 들어가 꿀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맹세한 것이 두려워 아무도 그 것을 입에 대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27 그러나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맹세시키는 것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 끝으로 벌집에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기운이 나며 눈이 밝아졌습니다.

28 그때 군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군사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오늘 먹을 것을 입에 대는 군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 있는 것입니다."

29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에 빠뜨리셨구나. 이 꿀을 조금 먹고 도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좀 보아라.

30 만약 오늘 적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조금이라도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 백성이 가축을 잡아 피째로 먹음

31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 느라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32 그래서 그들은 빼앗은 물건들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마구 잡아다가 그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었습니다.

33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했다. 당장 큰 바위를 이리로 굴려 오라."

34 사울이 또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들에게 가서 내게서 소와 양을 가져다가 이 돌 위에서 잡아먹되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전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그날 밤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습니다.

35 그러고 나서 사울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3 묵상하기

사울이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믿음의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감정적인 무리수 신앙일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고 계심에도 자기의 뜻, 자기의 열심을 숟가락처럼 얹으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 다. 그의 엉뚱한 열심은 결국 자기 아들을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으로 만들고 (27절), 더 힘낼 수 있는 군사들을 지치게 만들었으며(30절), 백성이 배고픔 때문에 고기를 피째 먹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32절).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종 하려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충동적으로 맹세하는 사울과 같은 무리수 신앙을 우리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면 잘되게 해주실 거야'라며 하나님을 조 건과 행위를 보고 축복하시는 분으로 깎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며 떼쓰듯 하는 기도,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충동적인 결단 등을 나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의 중심이 빠져버린 예배와 찬양, 형식적으로 하는 QT 역시 사울의 금식처럼 무모한 종교적 행위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기를 바라며섬기는 세상 종교들의 열심을 따르지 말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지 않으면 벌받을까 봐, 혹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그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이 내게도 있지 않나요?
- ② 사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알고 보면 내 의도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제 의도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2023 - 8차 가정에배지

아동용

[사무엘상 14:24-35]

어리석은 결정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1 2 3

24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저녁이 되기 전, 적들에게 원수를 갚기 전까지 먹을 것을 입에 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중략)

32 그래서 그들은 빼앗은 물건들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마구 잡아다가 그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었습니다.

33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했다. 당장 큰 바위를 이리로 굴려 오라."

34 사울이 또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들에게 가서 내게서 소와 양을 가져다가 이 돌 위에서 잡아먹되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전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그날 밤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습니다.

35 그러고 나서 사울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 궁굼 사전

*맹세: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함

*배신:믿음을 저버림

• 말씀 씨앗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울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치고 배고팠던 사람들은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잡아 피가 있는 채로 먹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었어요. 사울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말았어요.

3 말씀새싹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나요?



4 말씀열매 -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모두 골라 ○표 하세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사울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5 기도하기

하나님, 저의 어리석은 결정과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